데이터과학 실습 6 주차

컴퓨터공학과 201201886 나동희

1. 과제를 해결한 방법

1) 파이썬 시각화

: 1 명의 데이터를 골라 10 일 간의 데이터를 모두 파싱한 후 심장 박동 수를 발걸음을 기준으로 평균치를 내어 분석해보고 또 다른 요소인 수면 상태까지 포함해서 평균치를 내어 심장 박동수를 분석해본다. 또한 선형 회귀 분석법을 이용하여 심장 박동수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본다.

2) R 시각화

: 위의 파이썬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csv 파일로 저장한 후 불러와서 심장 박동 수와 Bean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화한다.

3) D3.js 시각화

: 총 걸음 수, 최대 걸음 수, 최소 걸음수, 평균 심박수, 최대 심박수, 최소 심박수를 버블차트로 만들어 본다.

2.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것

- 기본적인 파이썬의 이해
-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이해(?)
- 기본적인 R 문법의 이해
- D3.is 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

3. 결과 화면 캡쳐와 설명

1) 파이썬 시각화

: 우선 분석을 시작하기 위해서 10 일치의 데이터를 모두 합쳐야 했다. 하지만 수면 로그가 30 초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 병합을 위해서 0초 단위로 바꾸어 준다. 그리고 선형회귀법의 Training set 와 Cross Validation set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2016 년 4월 1일 자료부터 2016 년 4월 7일까지의 자료를 Training set, 이후 자료를 Cross Validation set으로 사용한다. Cross Validation set은 Training set으로 만든 모델의 검증용 데이터로 사용한다.

```
heart_json_df = heart_json_df.rename(columns = {u'value': u'heart_beat'})
sleep_json_df = sleep_json_df.rename(columns = {u'dateTime':u'time'})
sleep_json_df = sleep_json_df.fillna(4)
for t in range(len(sleep_json_df[u'time'])):
    sleep_json_df[u'time'][t] = sleep_json_df[u'time'][t].split(':')[0] + ':' + sleep_json_df[u'time'][t].split(':')[1] + u':00'

merge_data = step_json_df.merge(heart_json_df, left_on = u'time', right_on = u'time', how = 'outer')
multiple_merge_data = merge_data(a'status')]):
    if pd.isnull(multiple_merge_data[u'status'][t]):
        multiple_merge_data[u'status'][t] = 4

return_multiple_merge_data
```

2016년 4월 1일 로그부터 2016년 4월 9일까지의 로그를 모으고 합친다

이 때 수면시간도 다른 시간과 같은 시간대로 (30초 단위 -> 0초 단위) 조절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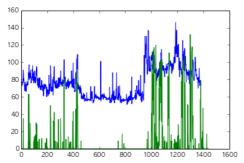
```
In [13]: data_list = [20160401, 20160402, 20160403, 20160404, 20160405, 20160406, 20160407]
data_frame_list = list()
print "create training data set"
for i in data_list:
    print i
    data_frame_list.append(getData(i))

training_data = pd.concat(data_frame_list)
data_list = [20160408, 20160409]
data_frame_list = list()
print "create test data set"
for i in data_list:
    print i
    data_frame_list.append(getData(i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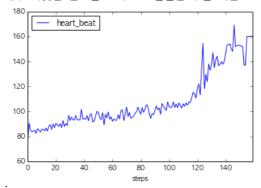
test_data = pd.concat(data_frame_list)
training_data.to_csv('data.csv')

create training_data set
20160401
```

우선 걸음수와 심장박동수의 추이를 봐본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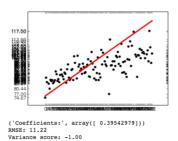
매우 비슷한 분포를 보이므로 발걸음 수를 기준으로 한 평균 심장 박동수를 그래프로 표현해본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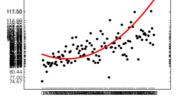


실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. 그래서 선형회귀 모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현해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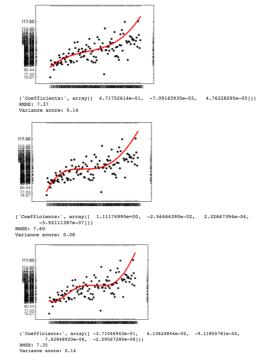
어느정도 선형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선형 회귀를 통해 심장박동 수를 예측해본다

Polynomial Regression 모델을 구현해서 degree를 늘려가 보면서 적절한 모델을 구한다.(1<= degree <= 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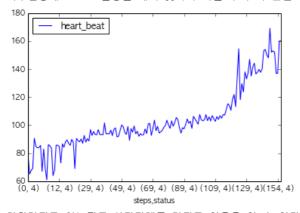


('Coefficients:', array([-0.21256604, 0.00397262]))
RMSE: 8.98
Variance score: -0.28



RMSE(Root Mean Square Error)가 너무 크면 Under fit 너무 작으면 일반적으로 Over fit 이라고 하는데 보통 RMSE 값이 작은 경우에서 고르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High Variance 일 수록 Ove fit 이므로 적당히 RMSE도 작고 Variance 값도 작은 degree 가 3 인 회귀 곡선이 심장박동 수 예측모델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든다. (RMSE: 7.37 Variance Score = 0.14) (검정색이 실제 값이고 빨간 선이 예측 값이다.)

이번에는 수면 상태도 포함을 시켜서 분석을 해본다. 수면 상태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비수면상태로 4로 설정을 해서 숫자가 작을 수록 더 깊은 수면상태로 설정을 한다.



마찬가지로 어느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마찬가지로 선형회귀 모델을 구현해본다.

```
: from sklearn import datasets
from sklearn.linear_model import LinearRegression
from sklearn.pipeline import Pipeline
from sklearn.preprocessing import PolynomialFeatures
from mpl_toolkits.mplot3d import Axes3D
from matplotlib import interactive
train x, test x = np.array(X), np.array(testX)
train_y, test_y = np.array(Y), np.array(testY)
     threed_graph = plt.figure().gca(projection='3d')
threed_graph.scatter(train_x.T[0].tolist(), train_x.T[1].tolist(), pipeline.predict(train_x).tolist(), color='red')
threed_graph.scatter(test_x.T[0].tolist(), test_x.T[1].tolist(), test_y.tolist(), color='black')
threed_graph.set_xlabel('steps')
threed_graph.set_ylabel('status')
threed_graph.set_zlabel('heart beats')
threed_graph.view_init(30, 240)
plt.show()
print('Coefficients:', regr.coef_)
print('Coefficients:', regr.coef_)
print('RMSE: %.2f' % np.sqrt(np.mean((pipeline.predict(test_x) - test_y) ** 2)))
print('Variance score: %.2f' % pipeline.score(test_x, test_y)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steps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.5.8.5□50 0
         Variance score: 0.28
 50 100 150 200
     ('Coefficients', array({ 2.87286127e-01, 6.26404089e-01, 8.89437950e-02, 1.6272121e-01, 1.21751082e+00, 1.87381955e-01, -1.21259827e+00, 2.74307046e-01, 1.03518314e+00, -1.31435501e-02, 8.08504015e-02, -1.2849987e-01, 1.04001270e+00, -9.44307235e-01, -2.15137129e-08, 3.28788026e-03, -3.1883375e-02, 1.23300421e-01, -2.81880610e-01, 1.72343545e-01]))

RMSE: 7.21
Variance score: 0.34
```

마찬가지로 RMSE(Root Mean Square Error)가 크면 Under fit 너무 작으면 일반적으로 Over fit 이라고 하는데 보통 RMSE 값이 작은 경우에서 고르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High Variance 일 수록 Over fit 이므로 적당히 RMSE 도 작고 Variance 값도 작은 degree 가 3 인 회귀 곡선이 심장박동 수 예측모델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.(RMSE: 7.49 Variance Score = 0.28)

(검정색이 실제 값이고 빨간 선이 예측 값이다.)

이러한 예측 모델을 통해서 만약에 Fitbit 이 가방에 있어 심박수가 측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심박수를 측정 할 수있고, 또한 Status 가 4인 경우에도 steps 가 0인 경우 학생이 졸고 있는지 여부도 SVM 과 같은 모델로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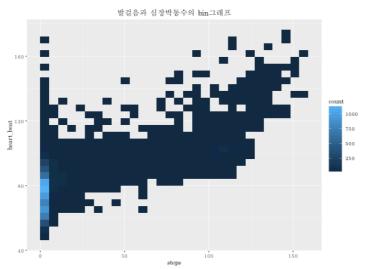
그리고 이 예측모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사람이 움직이면 심박수가 빨라지고 수면상태에 빠질 수록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심장 심박수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.

2) R 시각화

```
library(ggplot2)
setwd('/Users/coronal0/cnu_datascience/week6/R')
rf <- colorRampPalette(rev(brewer.pal(11,'Spectral')))
r <- rf(32)
# 파이센에서 작업한 csv파일을 import한다.|
data_set <- read.csv('data.csv', sep = ',')
p <- ggplot(data_set, aes(steps, heart_beat))
t <- theme(text=element_text(family = "AppleMyungjo"))
title <- ggtitle("발설용과 심장박동수의 bin그래프")
h3 <- p + t + stat_bin2d() + title
h3

[(Top Level) :
```

파이썬에서 작업한 csv 파일을 가져와서 bin 그래프를 그렸다.



위의 bin 차트를 통해서 어느 심박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.

3) D3.js 시각화

사용자의 10일간 로그를 분석하여 총 걸음 수, 최대 걸음 수, 최소 걸음수, 평균 심박수, 최대 심박수, 최소 심박수를 버블차트로 만들어 본다.



위의 bubble 차트를 통해서 Fitbit의 통계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다.